

사회발전과 학문의 상호의존 분방한 흐름 정리에 도움

— 스태닐랜드의 「정치경제학」

현 사회과학계에는 새로운 학문적 방법에 대한 요구로 정치경제학이란 용어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틴 스태닐랜드(Martin Staniland)의 「정치경제학」(정규섭역, 나남)이 번역되어 나왔다. 이 책은 정치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이란 정치학과 경제학과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두어왔던 오랜 知的 작업의 최신 산물이다. 즉 사회의 전문분야로만 연구되어 왔던 정치학과 경제학을 결합하여 사회현상을 좀더 폭넓고 깊숙이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는 학문분야이다. 그러나 학문의 각 분야에서는 이 개념을 단순히 절충해서 해석하거나 편협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즉 정치경제학을 공공정책분야를 취급하는 연구에만 적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으로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책이 정치경제학을 마르크스즘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양자 사이의 방법상의 여러 차이점을 희미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저자는 18세기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을 잘 개관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정치경제학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후 저자는 정치경제학이 실증적이며 자유주의적인 경제학으로 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3장에서는 농민행위의 합리성과 이를 정책분석에 적용시키려는 팝킨, 로스차일드, 커리의 신정치경제학이론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전통과는 달리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갈라져

나가는 정치우위의 논리를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組合主義, 국가주의 등의 이론이 있다. 5장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넓혀 중상주의 학파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속이론, 세계체제론 등을 국제정치경제학이라는 범주로 다루고 있다. 6장에서는 마르크스즘의 입장에서 제3세계를 기술하는 구조주의국가론, 헤겔주의적 마르크스즘을 다루고 있다. 또한 책 전반에 걸쳐 경제와 정치의 상이한 입장은, 시장을 강조하는 경제학과 권력을 강조하는 정치학의 극단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견해차이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이 책의 기본 구상은 「정치경제학이 단순히 유행과 이데올로기적 주장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저자는 중속이론이나 세계체제론이 지배와 불평등의 논리전개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제3세계에 존재하는 인종주의나 민족주의와 같은 문화적 요소도 포함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경제학이 하나의 방법론이기보다는 의제이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다양성이 가지는 정치적 기반을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의 주요목적이라 하겠다. 결국 이론의 영역은 세계적이며 다원적인데, 이의 중요성은 일반이익의 문제들을 구체화시키고 표출시키는 기능에서 나온다고 저자는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이 이론분야의 새로운 개설서로서 분방한 학문적 흐름의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재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독자에 충격 준 '놀라운 사건' 기철학의 공허한 개념엔 실망

— 김용옥의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쏟아져 나온 김용옥씨의 일련의 저작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충격이었다. 동서고금을 두루두루 섭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원시원한 필치하며, 하다못해 요리법에 이르기까지 신변잡기같은 것을 늘어놓다가도 참으로 용케(?) 본론에 합류해놓는 재주하며, 때로는 선지자적인 외침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는 많은 찬반양론을 낳으며 어떤 의미에서든 기존의 학계에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저작들이 또한 많은 독자를 혼란에 빠뜨린 것도 사실이었다. 그 이유는, 파격적인 언어구사나 저자의 자신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자신감에 대한 불쾌감, 또는 무언가 신랄한 비판이 있기는 있었으나 책을 덮고 난 뒤에는 무엇을, 왜, 어떻게 비판했는지에 대해서보다는 무언가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는 만족감에 빠진 자신을 발견한 당혹감 같은 것 때문은 아니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모든 분야의 백과사전을 종합무진으로 오려붙인 듯한 전문성과 치밀성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이유는, 저자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과연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나' 하는 것을 '더 근원적이고 일차적인 것'(pp. 38~39)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에 따르면, 기철학을 관념론이나 주관주의로 규정하는 시도가 '개소리'인 것과 기철학이 개소리인 것 모두가 진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더우기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정신이냐, 물질이냐 하는 식의 분명한 문제제기 자체를 혐오하고 있던 독자들은 정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제3의 어떤 것, 곧 생성의 부단한 과정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기철학이 철학의 근본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기철학에서의 '생성'이 애초의 정신과 물질의 대립을 가능케했던 매개=생산이라는 실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탄생한 공허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완전히 실망하고 말았다. 나아가 이런 차원에서 철학을 '생물학으로 환원'시키려는 기철학의 맹목적인 자기전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끔 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철학은 철학의 근본문제를 폐기하고 이와는 무관한, 안전한 제3의 무엇을 찾으려는 절충주의적 시도와, 그런 시도에서 현실의 모순을 해소하거나 최소한 은폐시키려는 정치적 배려가 맞아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그 설득력을 넓혀가게 되었다.

그러나 기철학은 아직도 많은 유용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아직 일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기철학이 겨냥하는 독자층이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하기보다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철학의 유용성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현실의 물질 토대가 소멸될 때까지는 잔존하게 될 것이다.

박석준
충남 대전시 중구 태평동 삼부아파트 33-34.

創刊號 第1輯 責任編輯 李基白

一潮閣 刊行案内



一潮閣 新刊案内

圖書出版·總販 一潮閣 서울·鍾路區 公平洞 9 / 電話·(733) 5430~1 光化門私書函 279 / 對替 010041-31-511931

韓國史市民講座

값 2,500 원

目次

- 特輯—植民主義史觀 批判
 - 李基白 / 半島의 性格論 批判
 - 姜晉哲 / 停滯性理論 批判
 - 李泰鎮 / 黨派性論 批判
 - 旗田巍 /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史 研究의 傳統

- 韓國의 歷史家
 - 李基白 / 金大問과 金長淸
- 研究生活回顧
 - 金元龍 / 나의 韓國 古代文化 研究 遍歷
- 歷史學講義
 - 梁秉祐 / 民族主義史學의 諸類型
 - 吉玄謨 / 民族主義史學의 問題

臨床腦波 韓善浩·齋藤章二 共著 / 208面 / 값8,000원

最新耳鼻咽喉科學 白萬基 編著 / 528面 / 값20,000원

最新外科學 金鎮福外80人 共著 / 1432面 / 값38,000원

經濟原論 朱宗桓 著 / 728面 / 값8,000원

俞吉濬傳 俞東瀟 著 / 366面 / 값6,000원

久菴遺稿·東國地理誌 韓百謙 著 / 346面 / 값8,000원

朝鮮王朝財政史研究(II) 金玉根 著 / 296面 / 값6,000원

朝鮮社會史研究 宋俊浩 著 / 532面 / 값9,000원